

스승의 이름으로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바둑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다룬 단순한 드라마는 아니다. 어쩌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넘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바둑판 통과(레이더)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훈현과 이창호, 한국 바둑의 양대 거장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며 언젠가 살해당해야 하는-정신분석적 개념이다-아버지의 존재와 법과 질서로써 언젠가 넘어야 하는 아들의 묘한 긴장과 숙명이 있다.

라캉의 말을 빌리면 이창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존재인 아들의 이름을 넘어서서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야 할 숙명을 통과해야 하며, 아버지인 조훈현은 언젠가는 아들에게 죽어주어서 법과 질서를 물려줘야 하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캉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가 상징계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 구조다. 어머니와의 융합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는 '아버지'-법과 금지

의 상징-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질서와 규율을 부여하는 상징이다. 조훈현은 이창호에게 있어 그런 상징적 아버지일 것이다. 타고난 재능과 카리스마로 바둑계를 지배하던 조훈현은 세계 바둑계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법이자 질서였고, 이창호는 그 질서 안에서 '좋은 아들'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진짜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를 넘어서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단순한 반항이나 배신이 아니라, 상징계 내에서의 성숙과 독립을 쟁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창호가 조훈현과 맞붙는 장면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규정짓던 질서-'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며 모범답이라고 여겼던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정답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법과 질서를 만들고, 그래서 따르기만 하던 아버지의 알던 답을 버리는 탈피를 통해 모호하고 불안한 답 없음의 세계로 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영화는 조훈현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님을 알려준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

의 규율을 넘어설 때, 그것은 한 세계의 종말이며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세계가 시작 됨을 말해 주는 듯 하다. 스승이자 상징적 아버지였던 조훈현은, 제자의 승리를 통해 더 큰 의미로 완성된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면 건 강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부재가 그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하면서 언젠가 자신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법과 질서를 만들려는 아들에게 죽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존재 말이다.

이런 아버지의 부재는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상처 받고 돌아 왔을 때 포근하게 안아주고 다시 세상을 향해 승부 하도록 하는 어머니가 아닌 세상에서 마주해야 할 아들 자신의 승부를 대신 해주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든 어머니를 만들게 된다.

건강한 아버지의 부재는 자신의 도전을 성취하지 못할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강함과 폭력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어린 아이 수준의 조폭인 아들을 만든 것이 아닐까?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배당절차 정착' 착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지수첩
김대환 (자본시장부)

정부는 배당절차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정착 단계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는 그 자화자찬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준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제로 배당절차를 개선한 코스닥 상장사는 53개사에 불과했다. 결산배당을 실시한 코스닥사 606개 중 단 8.8%만이 제도의 취지대로 절차를 바꿨다는 뜻이다. 정부가 말하는 '정착'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배당은 주주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통로다. 주주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 투자한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주중 전날까지도 배당 여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받을지 모르지는 배당'을 믿고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이런 배당 구조를 '선진국형'이라 부를 수는 없다.

상법 개정 3년이 지났지만, 정관을 고쳐 배당기준일과 주주총회 결의 시점을 일치시킨 기업은 극히 드물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형식적 도입이 이뤄졌지만, 이름뿐인 개정도 적지 않다. 정관에 모호한 문구만 삽입하거나, 여전히 배당공시는 기준일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단순했다. 배당 기준일을 먼저 고지하는 기존 방식이 '깜깜이 투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컸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금도 주주는 여전히 같은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투자자는 기업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이며, 불투명한 배당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을 제도권이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자율 도입을 앞세워 실질적인 감시는 외면했고, 코스닥협회는 '기업의 인식 부족'을 탓하며 뒤늦은 홍보에 나섰다. 시장은 외면하고, 정부는 미온적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불명확한 배당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을 회피할 명분이 되기도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운운하면서도 그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장에 신뢰를 거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제도가 뿌리내리려면 '자율'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다. 감시 기관은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고, 기업은 실제로 응답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번 개정 역시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개혁으로 끝날 것이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10일 (음 3월 1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산돌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48년생 적당한 경쟁력이 발현의 밑거름이 된다. 60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72년생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다. 84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



37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정화를 신어라. 49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61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라. 73년생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니 가게가 번창함. 85년생 직장에서 승진되니 경사가 겹겹.



38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50년생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한발 양보해보자. 62년생 무엇을 해도 기본 좋은 날. 74년생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다. 86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보지 말고 세탁.



39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활기차다. 51년생 성공을 위한다면 오늘을 앞차게. 63년생 자주 만나야 마음을 알 수 있다. 75년생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하니 영업 이득 발생. 8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40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2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64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의 열쇠가 되니 경청. 76년생 평소의 배려와 노력이 밝은 미래를 결정짓는다. 88년생 농친 고기가 커 보인다.



41년생 주변이 어수선하니 언행과 측근 조심. 53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실망은 금물. 65년생 신경질 내면 본진 찾기 힘들다. 77년생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른 내 마음. 89년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42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54년생 해도 해도 바라는 연인은 인생을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66년생 행복은 언제나 주변에 있다. 78년생 세상에는 비밀이 없으니 말조심을. 90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나를 보는 듯하다.



4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하게. 55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6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9년생 골치 아픈 일은 부모님과 상의. 91년생 무슨 일든 결국은 올바른 이치대로 움직여야 성사된다.



44년생 바쁜 하루 보람은 있다. 56년생 둘다리도 두들겨보라. 68년생 무슨 일이나 시기를 놓치면 후회한다. 80년생 내키지 않는다고 종일 회사에서 핑거리려면 떠나가는 것이. 92년생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잠시 참고 견뎌보라.



45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아직도 무난. 57년생 매파를 보았으나 소식이 없어 난감하다. 69년생 산책이 아름답고 물 또한 깨끗하다. 81년생 소금 장사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93년생 지출에서 공과 사를 살펴보자.



46년생 어려운 일을 책에서 답을 찾는다. 58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을 존중해라. 70년생 병원에서 소지품 주의. 82년생 얼음과 솥의 차이를 꼭 먼저보고 알아야 하는 어려서움. 94년생 집을 사니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는 하루이다.



47년생 쾌청한 날이니 청소를 집안을 정리정돈을. 59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보라. 71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지. 83년생 스승님을 찾아뵙자. 95년생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집안의 계획은 화목에 있다는네.



김상회의四季 금계 포란 월광사

서울에는 부촌이 몇 군데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하는 게 한남동이다. 한남동은 풍수로 보면 길지 중의 길지라고 할 수 있다. 남산을 주산으로 하고 한강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주산인 남산의 좌우에는 청룡과 백호가 자리하는데 그 중심을 한강이 흘러가는 형세다. 풍수가 좋은 터에는 재물의 기운이 강하기 마련이다. 재물의 기운이 강하니 부촌이 형성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부호들이 모여들고, 풍수를 모르고 자리 잡은 사람에겐 선물처럼 재물복이 터진다.

풍수 좋은 지역엔 소문나지 않아도 재물과 권력이 운집하기 마련이다. 그런 사례를 필자는 월광사에서 체감한다. 월광사는 필자가 주석하는 사찰이다. 월광사를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몰려있다. 대표적으로 농협은행 본점이 있고 여론을 끌여가는 신문사도 한두 곳이 아니다. 재물이 탄탄하고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 사옥도 자리 잡고 있다. 몇 걸음 걸으면 닿는 곳에 경찰청이 있고 연금 관련 공공기관도 있다. 한마디로 재물과 권력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재물과 권력이 모이는 건 우연이 아니다. 어떤 기관은 풍수가 좋아서 의도적으로 이곳을 택했을 수 있다. 재물이 모여드는 길지로 찾아가는 건 경영전략 중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다. 또 어떤 기관은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좋은 기운에 끌려서 왔을 수도 있다. 이것 역시 풍수의 효과다. 일부 기관은 이곳에 자리 잡을 때는 몰랐는데 풍수 효과로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도 한다. 생각지도 못한 행운의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다. 필자는 월광사에서 기도하고 공덕을 기리면서 큰 규모는 아니어도 좋은 기운으로 여지없이 금계포란이라 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